

2024년
고3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독서 | 21세기 유럽의 실재론자들, 굿맨의 세계
제작과 진리 이론 소고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인식하는 것)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 **근대 철학자들의 사유와 대상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있었다.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는다.)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상관주의, **상관주의와 다른 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다.

▶1문단: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의 관계에 대한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

현대 철학자 메야수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상관주의와 반대되는 메야수의 주장, **상관주의와 메야수의 견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한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메야수가 상관주의에 대해 갖게 된 문제 의식)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메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선조적인 것)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함을 **과학의 발견**(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함을 입증함)들이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가령**(내용 전개 방식: 예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측정으로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메야수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2문단: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의 관계에 대한 메야수의 주장

이렇게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 메야수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의 특성, **메야수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고 내용 일치, 추론 등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내용 전개 방식: 예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전하는 달은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전이 일식과의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메야수의 주장에 내포된 것)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메야수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며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메야수의 철학적 견해가 갖는 의의, **철학적 의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3문단: 우연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주장하고 사유의 확장을 시도한 메야수

(나)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궤만은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내용 전개 방식: 예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이다.**(버전의 개념, 버전의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와 같은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1문단: 대상을 범주화하는 체계인 버전

궤만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이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버전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는 궤만의 주장, **궤만의 주장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용 일치, 추론 등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세계의 특성: 인위적)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세계의 특성: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내용 전개 방식: 예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됨**(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재할 수 없다는 의미)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문단: 버전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는 궤만의 주장

세계에 대한 궤만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세계에 대한 궤만의 입장: 다양성, 상대성, **세계에 대한 궤만의 입장에 대한 내용 이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옳음**(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옳음을 **'적합함**(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내용 전개 방식: 예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다. 또한 지구의 움직임이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하지만 후대에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궤만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3문단: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 궤만

버전에 대한 궤만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버전에 대한 궤만의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궤만의 주장의 의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문단: 다양한 세계를 인정하자고 주장한 궤만

지문 확인

(가)

■ 주제: 인간의 사유와 독립적 존재에 대한 메야수의 철학적 논의

■ 각 단락 중심 내용

1문단: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의 관계에 대한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

- 근대 철학자들의 공통된 입장